

교육·환경·지역문제 해결 부각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나선 여성후보들이 주로 교육·환경·여성·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후보자의 2.2%에 불과한 63명(서울 22, 기타지역 41명)인 여성후보는 주로 여성유권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 당선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성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은 '시·도 예산운영의 철저한 감시' '교육격차 해소'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탁아소·여성인력센터 설치' '마을버스 운영'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환경감시운동 전개' 등으로, 탁아소·노인정 설치및 원활한 쓰레기수거 등 생활주변의 문제해결을 내세운 지난 3월 기초의회의원 선거 때의 공약보다 범위가 한층 넓혀졌다.

여성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교육 현실 개선을 다짐하는 공약사항이다.

서울 도봉2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풍자(48·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연세대 교수)씨는 인간교 교육·민주적 교육의 실현을 주장해온 교육운동가답게 '교육활성화를 위한 학교 단위의 교사·학부모협의회와 지역 단위의 교육협의회 구성'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해소' '학교의 공동급식제 도입' 등을 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전북 전주시4선거구에서 출마한 조옥영(70·전 오수중 교장·민자)씨는 남야도는 국민학교 교실을 청소년과 주부·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만들고 전북 19개 시·군마다 탁아소를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로 부천1선거

구에서 나온 윤은희(33·민주)씨는 "참교육의 양심으로 희망의 정치를 열겠다"며 중·고교 신설을, 교사 출신인 경북 구미시3선거구의 박진우(54·무소속)씨는 공립중학교 유치와 등하교시 버스노선 확충을, 경북 안동시의 양애향(36·민중)씨는 '학교급식의 전면실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개선'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 '교육자치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등 80년대 주요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펴온 서울 은평6선거구의 노영희(41·민중)씨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탁아소·여성회관·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해 대단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탁아소등 복지시설 확충 공통사항 생활주변서 예산감시등 시야 확대

건립, 마을버스 운영, 환경보호운동 전개 등 아심찬 공약을 제시한다.

서울 중랑3선거구에서 나온 여성운동가 출신의 이상덕(34·신민)씨는 "서울시 예산 5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의욕이 대단하다. 이씨는 또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소·여성인력은행 설치, 중랑구의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지역재개발과 관련한 공약도 많은 편이다. 인천 동구2선거구의 원미정(32·인천지역 노동조합 교육위원·무소속)씨는 주민의 참여 아래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고, 늘 쫓겨나는 입장인 세입자

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공약으로 내놓아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은평5선거구의 정청자(50·민중)씨는 진관내동 일대가 그린벨트에 묶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낡은 도로 개선, 여성회관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84년 망원동 물난리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화제가 됐던 서울 마포4선거구의 한정자(36·민주)씨는 보상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인 신정·망원·합정동의 침수대책 수립, 산동네에 영구임대아파트와 탁아소가 세워

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전남 광주에서 나온 4명의 후보는 '광주문제 해결'을 주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 지역 재야민주단체의 단일후보로 광주 서구2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성례(53·광주민가협 회장)씨는 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의 중추역할을 해온 경력을 살려 광주문제 해결과 참민주사회 건설, 여성의 권리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3선거구의 이윤정(36·무소속)씨도 광주문제 해결과 영세민 생활대책 수립을, 광주 서구7선거구의 장영숙(47·신민)씨는 수돗물·쓰레기문제 해결과 노선버스 확충을, 광주 북구3선거

었다.

서울 영등포4선거구에서 출마한 전 소비자단체협의회 총무 이정자(49·무소속)씨는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운영 감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추진, 취업여성을 위한 학교급식제·탁아소·여성인력은행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직 의사로 서울 성동6선거구에서 나온 산부인과 전문의 최차해(55·민자)씨는 영세민을 위한 직업안내소와 의료진료원 건립추진을, 성남3선거구의 금옥례(56·민자)씨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여성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은 주로 교육환경의 개선,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소, 인력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면목국교에서 열린 중랑3선거구 합동유세 모습.

〈이정우 기자〉

센터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남 여천시1선거구의 강풍자(47·무직·민자)씨도 산업재해종합병원 설립을 내세웠다.

이밖에 연예인으로 과천1선거구에서 나온 성악가 이경애(37·신민)씨는 주부노래교실 운영, 청소년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콘서트 상설화를 비롯해 딸벌이 부부를 위한 시립탁아소 설립, 종합병원 설립, 과천 단일학군제 실현, 국민학교의 완전급식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동대문1선거구에서 나온 텔런트 김을동(45·민주)씨는 '탁아소 시설 확충' '낙후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여성회관 설립' 등을 내세웠으며, 마포4선거구에서 출마한 가수 이선희(27·민자)씨도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소 설치, 노인정시설 개선, 노고산동 연탄공장 이전, 불합리한 학군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신연숙 기자〉

91.6.13